

서순실 구연 창세서사시 <천지왕본풀이> 연구

김헌선(경기대)

1. 굿드리

<천지왕본풀이>의 굿에서 하는 대목을 보면 이와 관련이 있으나 이를 아진굿으로 하는 굿드리이고, 실제로는 이와 다른 면모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3. 베포도업침1(산초감제)

1.3.1. 천지혼합 제이름〔연물〕

1.3.2. 게벽시 도업 제이름〔연물〕

1.3.3. 천개·지개·인개, 상경계문도업, 천황·지황·인황 도업 제이름〔연물〕

1.3.4. 수성계문, 동성계문 도업 제이름〔연물〕

1.3.5. 복두칠성, 선오성별 도업〔연물〕

1.3.6. 월일광 도업〔연물〕

1.3.6.0. 천지왕본풀이(*월일광 본초)

1.3.7. 십오성인 도업〔연물〕

1.3.8. 천황베포·인황베포·지황베포 도업, 산베포·물베포·원베포, 신베포·왕베포·국베포도업, 제청도업-〔연물〕

1.3. 베포도업침2(앗인초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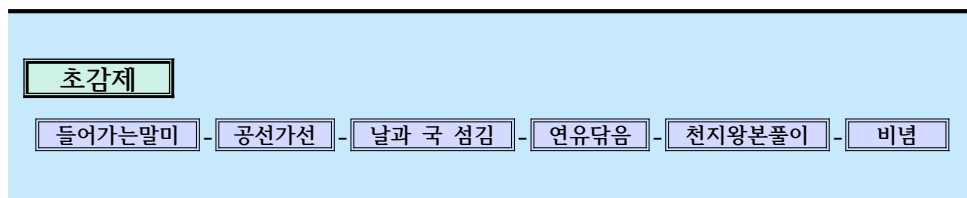
1.3.1. 천지혼합 제이름〔연물〕

1.3.2. 게벽시 도업 제이름〔연물〕

1.3.3. 천개·지개·인개~십오성인 도업, 천왕·지왕·인왕베포도업, 제청신도업-(말미장귀)

1.4. 날과국섬김

초감제>들어가는 말미>공선가선>날과 국 섬김>연유담음>천지왕본풀이>비념



제주도 굿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말이 바로 굿드리라고 하는 말이다. 젓드리와 구분되는 특징적인 것이 바로 굿드리라고 하는 말이다. 굿의 순서와 절차가 긴요한 것이다. 포괄관계의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굿의 진행 순서를 지칭한다. 작은 굿이든 큰 굿이든 비념이든 맞이든 모두 구체적으로 이를 굿드리로 감별하여 말한다. 굿드리를 알게 되면 굿에 동원되는 핵심 절차를 보는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굿의 절차와 순서를 아는 중요한 것이 된다.

초감제는 큰 절차이다. 들어가는 말미는 굿거리의 해당 대목을 말한다. 공선가선은 본격적으

로 장단을 치면서 굿가락에 맞추어서 한다는 말이다. 날과 국 섬김은 시간과 장소를 일컫는 말이다. 연유담음은 이것을 왜 하는지 말하는 절차이다. 천지왕본풀이는 서사시를 말한다. 비념은 기원하는 말이고 비는 말임을 알 수가 있다.

제주도의 굿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굿ㄷ리를 아는 것이다. 굿ㄷ리를 알게 되면 굿하는 순서와 절차에 대한 일정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구성 요소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해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굿ㄷ리는 심방의 굿 이해 방식을 아는 것이면서 동시에 굿의 진행 절차를 아는 것이므로 소중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를 모두 아는 것이 굿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굿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정밀하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굿의 모든 것을 해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절차를 안다고 모든 것이 알게 되는 것일 수 없다. 오히려 굿의 외형적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새롭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들어가는 말미는 굿거리의 안내판 구실을 하는 말미이다. 말미는 무당이 기원하는 말의 뜻으로 이를 달리 말미이라고도 한다. 말미의 각별한 뜻을 생각하여야 한다. 굿거리의 초앞에서 굿거리의 표지를 다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미가 있다면 달리 나오는 말이 있다. 굿거리의 다음 표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말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값진 의미를 가진 굿거리의 표지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고장의 굿에서도 이러한 표지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

공신가선은 무조신의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말미 장귀를 비롯하여 일정한 의미의 장단과 리듬이 주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전라도 굿에서 말하는 “공심은 저러지요”와 같은 것도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전에는 말미이므로 말로 하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일정하게 의미로운 리듬이 주어지면서 굿의 전환적인 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조신의 경우는 공신가선, 공심은 저러지요 등으로 관용어구를 활용한다.

날과 국 섬김은 시간과 공간을 배열하면서 굿하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날을 섬기고 국을 섬기면서 일정하게 굿의 요점을 환기하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절차임을 알 수가 있다. 굿의 절차에서 시간과 공간을 환기하면서 일정한 절차와 법도를 갖추는 것이다. 인공적인 조건 속에서 이러한 방식의 절차는 소중한 구실을 하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날과 국 섬김의 절차는 긴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연유담음은 굿을 하는 사연을 신에게 고하는 절차이다. 굿을 하는 사연을 말하면서 기원을 하고 이에 의한 본주들의 구성 인원을 열명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한다. 연유담음을 통하여 기원하는 내용이 말해지고 신에게 아뢰어지면서 일정한 절차를 구송하게 된다. 연유담음을 말로써 신에게 사연을 고하는 방식을 제주굿에서 특징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이른다. 연유담음을 통하여 굿하는 사정을 말한다.

천지왕본풀이는 본풀이의 실제적인 절차를 말한다. 더욱 세분한다면 본풀이 들어가는 말미를 한 차례 고하고, 이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한 일정한 본풀이의 말미를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온당하게 구연하지 않아서 절차에서 생략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본풀이 들어가는 말미를 하고나서 이어서 본풀이를 구송하는 것을 일반적인 절차고 삼아서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한 점에서 천지왕본풀이의 절차는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비념은 굿하는 사정을 고하고 동시에 이에 의한 절차를 분명하게 하는 것에서 특징적인 면모

1) 赤松知城·秋葉隆, 이종만 구연 시루말, 烏山十二祭次, <<朝鮮巫俗研究>> 上卷, 大阪屋號書店, 1937. “앗가몬저놀아나신님신은 시골은부정가망서울은영신가망 영부정상가망질거이놀아나고 금이쫓쳐오시는 넘신은시루성신이오실적에”라고 되어 있다. 전형적인 굿ㄷ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비념은 각별한 절차이고 굿하는 것의 소원을 직접적으로 아뢰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비념은 본풀이에 의한 비념을 한 차례 고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념의 절차를 중시하고 이에 입각한 의미를 환기하게 된다.

굿은 산굿과 아진굿으로 양분된다. 본풀이의 구연은 아진굿의 절차이므로 이에 입각한 의미를 환기하는 굿의 절차이다. 산굿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연되지 않으므로 아진굿의 절차를 이토록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굿드리와 함께 본풀이가 아진굿으로서의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을 알게 한다. 굿의 절차를 알고 굿드리를 아는 것이 굿 연구의 기본 관점이 되고, 제주도 굿의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2. 젓드리의 당클적 배치와 의의

제주도의 굿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당클이다. 당클에 대한 파악이 굿의 신격 이해에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클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당클은 의미로 본다면 이는 신이 굿판에 와서 임시로 머무는 거주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제주도 굿에서 활용하는 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굿할 때에 집안의 중심이 되는 마루의 상단에 선반으로 모시고 이를 고위의 주신 좌정처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면서 의미를 환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달리 당클 또는 당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선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클이나 당반은 그 자체로 보아서는 각별하지만 이에 대한 기원, 본포, 양태 등의 관점에서 이를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신들이 하강하는 양태를 고대의 신화에서 찾을 수가 있다. 신들이 단순하게 하강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일정하게 알, 궤, 상자, 동고리 등에 담겨서 내려오는 것이 신화적인 양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을 모시는 방식도 이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이를 보자기에 싸서 신성하게 모시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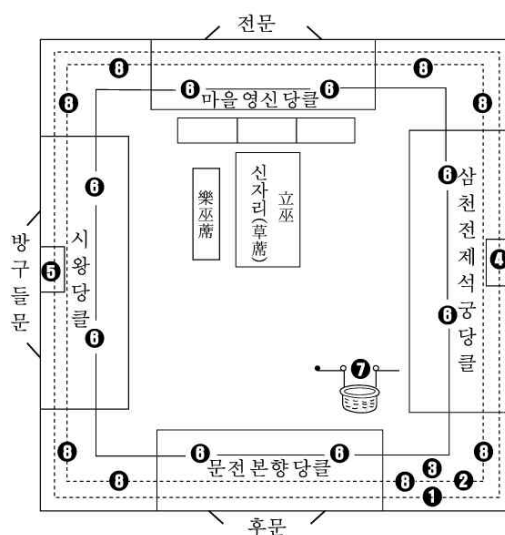
신들이 오셨으므로 이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신들이 와서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시준단지, 부루단지, 조상단지, 조상당세기, 조상말명상자, 조상을 섬기는 함, 사당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이에 입각하여 보면 당연하다. 고위의 신이 왔으므로 이들 신의 전통과 의미를 환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 신을 모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당반이나 당클을 거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전통적인 환기는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굿에서만 이들을 모시는 것은 아니다. 사위삼당을 매고 굿을 하는 전통이 있으며, 덕대나 장벚대 등을 만들어서 신을 모시는 것이 있으며, 또한 이들의 전통에서 나온 말인 “오를 반도 열두 반 내릴 반도 열두 반” 식으로 신들의 하강처를 모시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곧 제주도의 신들만 하강처와 좌정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당클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한 좌정처를 통해서 해야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당클의 전통이 풍성하게 남아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새로운 착안으로 이끌고 있음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당클의 숫자에 의해서 이를 삼당클, 사당클 등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한 착상의 본원이 된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당클의 종류와 가치를 말하는 것에서부터 양상을 정리하는 것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

다. 그렇지만 이제 핵심을 간추려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클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당클은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목된다. 삼당클을 매고 하는 곳도 있고, 사당클을 매고 하는 곳도 있다. 이에 의해서 구분하여 삼당클곳 또는 중당클곳이라고도 하고, 이와 달리 사당클을 매고 하는 곳을 사당클곳이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사당클을 매고 하는 곳이 큰곳이고, 큰곳에 본주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당클의 규모와 관계 없이 곳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당클의 수준과 의미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클은 공간적으로 존재한다. 제주도의 곳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이들의 구실에 의해서 신들의 구실에 의한 좌정처를 나누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높은 신은 높은 곳에 낮은 신은 낮은 곳에 좌정한다고 하는 관념을 주목적으로 하여 당클로 분류한다. 고위신은 주신이고 주신은 주목할 만한 대상이 된다. 주신과 반신 또는 주신과 부신(major-deity, demi-deity)의 나뉘는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신들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곳당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는가 하는 점은 정말로 소중한다고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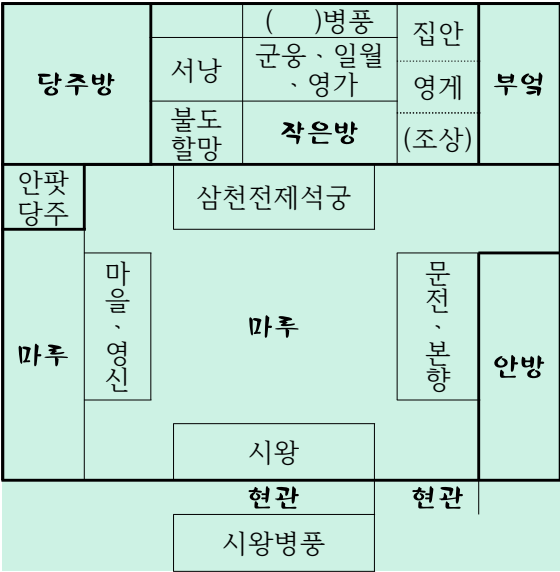
당클은 위계적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당클에는 모두들이 존재하고 신의 청배 순서와도 관련되므로 이들 신의 위계와 존재를 비롯하여 곳의 진행에 의한 순서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더욱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들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위계를 구성하고 곳의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당클에 의한 순서와 위계를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점에서도 소중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곳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신들의 위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의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신과 부신의 관계를 통해서 이들 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점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다. 주신은 당클도 분명하고 이들 신의 장식도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들 신의 내력을 구현하는 점에서 이들 신의 가치와 의의를 말하는 것은 소중한데 당클에 모셔지지 않고 이들 신의 내력을 말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제주도 신 가운데 특수신본풀이의 내력을 말하는 것과 주신인 초공본풀이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당클의 배당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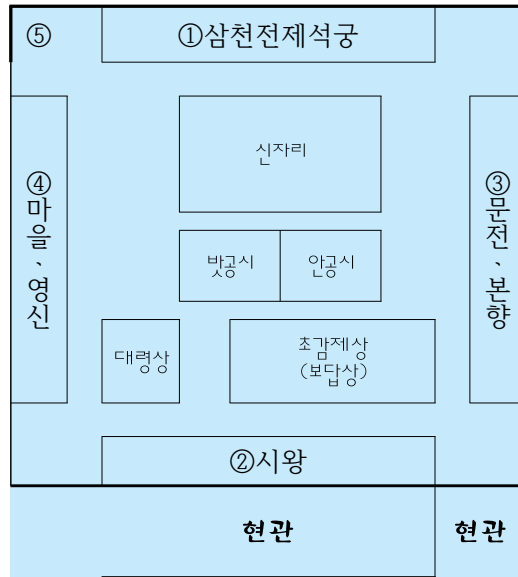
당클에서 보이는 문제 가운데 이들 만신전(pantheon)을 어떠한 각도에서 구성 요소로 보아

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당클 가운데 만신전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장차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들이 와서 어떻게 구현되고 현현하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이들을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신당과 본향당의 문제 역시 간단한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이들의 입체적인 관련을 문제삼아서 이를 다루는 것은 소중한 가치에 대한 환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있었던 서순실의 신국에서 보이는 구조도를 보이면 집안의 가옥 구조와 함께 이들의 실제적인 곳의 사당클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볼 수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 집의 구조와 당클의 구조가 관련된다고 하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 집이 곧 신의 집이고 신의 집이 곧 신의 당클인 점을 다시 환기하게 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집이나 당클이나 신당은 결국 하나이고 가옥 구조와 신의 구성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환기시킨다.



집안 구조와 당클의 배치



사당클의 배치

사당클은 삼천전제석궁당클, 시왕당클, 문전본향당클, 마을영신당클을 일컫는데 각 당클에 모셔지는 신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큰곳에서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²⁾ 사당클은 상방 또는 마루방에다 일정하게 네 벽에 선반을 매어 그 각 선반 위에 제물을 올려서 제단으로 삼는다. 이 선반을 이른 바 당클이라고 하고, 달리 당반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불리는 것은 바로 당클이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세 벽에 당클을 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당클은 바로 삼당클이라고 하도 이러한 규모를 흔히 중당클이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다. 당클은 신들이 임시적으로 좌정하는 곳이고, 이 곳에 좌정하여 당클에 신이 굿하는 와중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당클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의의가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기본적으로 제주도 심방들이 외우는 젃드리에 준거하는 것이지만 굿하는 현장에서 신들의 분류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 둘째, 이 신들을 어떻게 청하고 보내는가 하는 준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신들의 공간적 차지와 위계, 그리고 청신과 송신의 기준이 된다. 셋째,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들의 유형학적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당클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일정하게 곳에서 섬기는 신들의 존재 의의를 파악할 수 있음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들의 임시거처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신의 위계와 분류, 유형학적 의미를 환기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기여와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사당클이든 삼당클이든 이들의 종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이들의 존재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사당클에 모셔지는 신의 종류를 젃드리에 입각하여 귀속시켜서 이를 분류하게 되면 이들의 신적 존재양상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클에 소속되어 있는 신들을 예거하고 이들의 가치를 중시하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론적인 예증이고 실제로 이에 대한 가감이 생길 수 있다.

2) 玄容駿,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1986, 189-249면.

사당클	귀속 신격
삼천전제석궁당클	옥황상제(玉皇上帝), 지부사천대왕(地府四千大王), 산신대왕(山神大王), 산신백관(山神百官), 다섯 용궁(龍宮), 서산대사(西山大師)·육관대사(六觀大師), 삼승할망(產育神)과 그 권속(眷屬), 홍진국대별상 서신국마누라, 날궁전·들궁전(日月神), 초공(巫祖神)과 그 권속(眷屬), 이공(西天꽃발 呪花管掌神)과 그 권속(眷屬), 삼공(전상신)과 그 권속(眷屬)
시왕당클	시왕(저승과 生命 차지 神)과 그 하위신(下位神), 차사(十王의 使者), 명관(冥府使者)
문전본향당클	세경(農畜神)과 그 권속(眷屬), 성주(家屋神), 문전(門神), 본향(部落守護神), 칠성(富와 穀物の 神), 조왕(부역의 神), 오방토신(方位 및 집터의 神), 주목지신, 정살지신(집안 出入路神), 올담·내담지신(올타리神), 놀굽지신(날가리의 神)
마을영신당클	군웅, 일월조상(一家 내지 一族守護神), 영혼(靈魂), 혼백(魂魄), 마을 제사령(諸死靈)

삼천전제석궁당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떨기를 모아서 이를 특정하게 신직을 맡는 신들이 모여지는 것으로 관념한다. 하늘, 땅, 바다, 산, 절 등을 차지한 신들이 이 당클에 모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인간의 거처공간의 세계를 중심으로 신들의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옥황상제(玉皇上帝)는 하늘을 차지하여 다스리는 신이고, 지부사천대왕(地府四千大王)은 땅을 차지하여 다스리는 신이고, 산신대왕(山神大王)과 산신백관(山神百官)은 산을 차지하여 다스리는 신이고, 다섯 용궁(龍宮)은 바다를 차지하여 다스리는 신이고, 서산대사(西山大師)·육관대사(六觀大師)는 절을 차지하여 다스리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거주 공간이 요점이다. 무속 고유의 신격이라고 하나 대부분 이들의 신격은 고유의 신격과 함께 외부의 종교에서 차입된 것들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젯드리”는 제주도 신의 구성과 특징을 아는 기본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신들의 위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주도 심방들의 일정한 성경 노릇을 하는 것으로 제의의 진행과 집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외우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을 흔히 “젯드리”라고 한다. 이 신의 위계를 통해서 일정하게 신의 의지를 발현하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젯드리”로 정해놓고 의례 때마다 신들을 청하는데 절을 차지하는 신인 서산대사(西山大師)·육관대사(六觀大師) 다음의 젯드리가 삼승할망이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등 여러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들의 탄생을 위하여 절에서 기자치성을 드리는 것과 이러한 젯드리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궁따님아기는 바다에서 오고, 명진국따님아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젯드리의 가장 상위신이 하늘 차지 신인 옥황상제이기에 명진국따님아기가 삼승할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생명이 잉태되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과 연관되는 세계관이 수평적 이계에서 주인공이 출자를 하였다가 다른 주인공으로 교체되어서 이것이 수직적 타계(他界)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바로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가 된다. 흥미롭게도 저승할망인 구삼할망은 젯드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삼승할망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삶과 관련되어 있고, 마마신인 홍진국대별상 서신국마누라는 죽음과 근접하여 있다.

하늘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월성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월신인 해와 달은 중요하게 취급된다. 일월신은 ‘날궁전, 들궁전’이라하여 이들을 분리하여 놓았다. 이는 주

야(晝夜)를 하나의 시간관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구별하여 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칠원성군과 같은 존재는 이른 바 켓드리에 구성되어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들의 구성 요소에 일정한 차별성과 함께 엄격한 신관념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풀이에서 인문의 현상을 관장한다고 간주되는 것으로서의 존재로 일정한 본풀이의 세트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바 “신불휘, 꽃불휘, 전상불휘” 등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본풀이의 핵심을 관장하고 있는 신들이다. 이 신들의 내력담이 구체화된 것이 신격으로 발현되는데, 무조신인 초공, 생명꽃밭을 관장하는 주화관장신 이공은 각기 근원이 다르다. 하나의 근원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근원을 따로 설정하여 분리하여 놓았다.

삼천전제석궁에 모셔지는 신들은 특정하게 불교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삼천대천세계와 함께 제석천이라고 하는 범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무속식의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수직적인 세계들로 구성되었으며, 부모 세대, 남편, 자신이 하늘에서 맡은 바가 있어 하늘로 올라가야 하거나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들이다. 다만 전상신인 경우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불교적인 전생인연담과 관련된다. 삼천전제석궁당클에 속하면서도 독자적인 세계관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른 바 “내 복에 산다게” 유형의 민담과 <삼공본풀이>가 공유하는 근원적 이야기에 담긴 원초성이 잠재된 신격도 존재한다.

문전본향당클에 삶의 공간을 더욱 세분하여 이와 관련된 신직을 맡은 신들이 모셔진다. 일터인 농경지, 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는 마을, 주거공간인 집, 이 집을 세분하여 고팡, 부엌, 출입문, 울타리 등을 차지하여 이를 담당한다. 이른 바 인간의 거주공간 가운데서도 수평적으로 확장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신신앙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신의 제주도적 설정과 영향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바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천전제석궁당클에 모셔지는 신들과 문전본향당클에 모셔지는 신들은 현실 세계를 공유하며 이러한 공간을 분절하여 받아들인다. 집의 안과 밖을 차지하는 신격을 이러한 공간에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신화적 분절의 내용에 의해서 이들을 다룰 수 있다. 하늘과 땅, 우주와 가옥이라는 마을의 틀에서 이러한 구성에 따른 신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향신과 같은 존재도 집과 마을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 상에서 모셔지는 신격들이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된다.

하늘과 집의 삶을 관장하는 신격의 당클에 속하는 존재들과 달리 이와 전혀 다른 신격의 거주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들의 신격적 구성에 의한 것들은 주로 저승이나 사후 세계와 관련되는 신격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주목되는 공간과 신격은 저승을 비롯하여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사령이나 사령을 관장하는 이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신격적 구성은 이른 시왕당클과 마을영신당클과 관련되는 특징이 있다. 제주도의 사당클에서는 이러한 배분에 의한 이항대립적 양상이 확실하여 이것이 갈라지는 지점이 당클에서 구현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시왕당클과 마을영신당클은 수평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죽음의 공간과 관련이 있다. 죽음의 공간 역시 분절되어 있다. 저승은 제1관문부터 제10관문까지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번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이 맡는다. 이들은 육십갑자를 나누어 심판을 맡는다고 한다.³⁾ 저승이라는 공간은 구획되어 있고, 차사의 임무와 명관의 임무는 정해져 있다. 상마을, 중마을, 하마을은 영혼들이 사는 마을이다. 상·중·하의 구

3)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189-190면.

분은 높이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다. 시왕의 관문에서 이승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상마올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하마올로 간다. 이미 저승의 세계 역시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왕당클과 마을영신당클이 속한 죽음의 세계는 분절되어 있으나 동시에 이승과 연관을 맺고 있다. 삼천전제석궁당클과 문전본향당클에 모셔지는 신들은 삶의 세계만을 말하고, 죽음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죽음을 맞더라도 삶 너머의 죽음의 세계에 대한 언급 없이 이들이 부활하여 다시 삶의 세계에 소속된다. 죽음의 세계는 철저히 분화되어 있으나 영혼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승에서의 일을 근거로 해야 하기에 죽음의 공간 속에서 삶에 대해 말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삶과 죽음은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고대의 신전, 고대의 무덤, 중세의 신전, 중세의 교회당이나 법당 등을 환기하면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당클은 소박하지만 근본적인 이치가 같은 것임을 환기하게 된다. 특정한 신전이나 피라미드와 같은 것은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면모가 있다. 제주도 무당들이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주요한 신과 부수적인 신들이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환기하게 된다. 그러한 점을 주목하면서 사당클을 다시 보아야 한다.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신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실 수 있음은 편리하면서 언제나 값어치가 있음을 환기하게 된다.

천지왕은 당클의 어디에 있는 신인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천지왕은 당클에 어디에 좌정하여 모시고 있는 신인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천지왕의 의미를 환기하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왕의 전통적인 자리가 이 당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신의 좌정처를 아는 것이 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심방들이 섬기는 이러한 당클의 신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클에 모시는 신격들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들의 사제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이 당클에서 섬기고 있는가 하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제주도 심방의 특징은 멍두와 당주에 있다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나,⁴⁾ 근본적인 문제를 설정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심방은 제주도의 사제자이지만 이들이 섬기는 기명인 삼멍두 곧 멍두는 분명하게 흔적이 역력하다. 이들의 산판이나 기명이 결국 육지 무당의 신구와 같다. 이들의 소종래를 놓고 본다면 분명하게 고대의 건국 주체들인 청동기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집단의 후예이다. 삼멍두의 삼시왕을 섬기는 이들의 내력이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며, 이들의 내력에 대한 것들이 모두 건국신화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이 이 점을 증명한다.

삼시왕의 내력, 심방의 내력, 그리고 멍두의 내력이 청동기 시대의 유습을 구현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들의 내력이 당클과 연결되고 이 당클에서 섬기는 신격이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풀이에서 섬기는 신격들은 육지부에서 일정하게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신본풀이의 근간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당클에 섬기는 신격들 가운데 본향의 당신, 조상신 등이 더 있어서 원만한 조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신들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구조적인 면모를 구현한다. 이들의 출자를 통해서 우리는 일정한 가치와 의의를 밝힐 수 있다.

4) 강정식, 무속, <<제주특별자치도지>> 제1권, 제주특별자치도, 2019, 513-523면.

↓ : 수직적 하강출자-일반신본풀이
 → : 수평적 이동출자-일부 일반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 : 지상용출형출자-본향당신본풀이
 ↔ : 이곳과 저것 경계미분화-특수신본풀이

제주도 본풀이에서 섬기는 신격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들의 내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드러남을 볼 수가 있다. 이들의 유형적 분포와 출자의 유형이 서로 유형학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확인된다. 사당클에 모여서 섬기는 신격들이 이러한 유형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점은 새롭게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당클에 이러한 신격들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우리는 일정하게 법칙을 찾을 수 있다. 주된 골자는 일반신본풀이의 신격은 크게 삼천전제석공과 시왕의 당클에 배분되며, 일반신본풀이의 신격 가운데 특정한 신격은 문전과 세경 등은 다른 당클에 들어간다. 당신본풀이의 대부분은 문전본향당클에 들어가고, 조상신본풀이의 대부분은 마을영신당클에 들어간다. 이와 달리 특수신본풀이의 주체는 이러한 당클의 설정과 유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들의 출자와 세계관적 설정에 근거하여 배열하면 위의 사당클의 열개와 신격은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신격은 유형과 청하는 방식에 의해서 다양하게 준별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정리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천지왕본풀이>의 하위유형과 지역유형적 특징

<천지왕본풀이>를 하나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 유형의 본풀이는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채록된 많은 본풀이의 각편을 정리하고, 그 정리에 입각하여 유형을 정하고 신화소의 구성 요소와 함께 일정한 본풀이의 내용에 입각하여 순서를 정리하게 되면 몇 가지 하위유형이 성립한다. 성립하는 하위유형은 지역적인 특색도 가지거니와 아울러서 이를 지역유형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내용적인 특징은 지역유형에 걸 맞는 만큼 사제의 공동소유적 면모를 과시하기도 한다.

<천지왕본풀이>는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준거를 가지고 이를 정리하게 되면 이들의 성립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이를 크게 가른다면 주제를 가진 신화소에 의해서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하위유형과 지역유형을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가) 천지왕의 하강 사연
 - 가)1 일월조정을 위하여
 - 가)2 수명장자의 악행 때문에
 - 가)3 특별한 사정이 없이
- 나) 천지왕의 혼인 사연
 - 나)1 일월조정을 할 자식을 갖기 위하여
 - 나)2 수명장자의 악행을 제어하지 못하여
 - 나)3 하룻밤을 자게 됨
- 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 사연
 - 다)1 이승과 저승 차지를 위하여-지상 대결을 하고 후 대별왕만 올라가기-저승 혼돈 정리-일월조정하기
 - 다)2 하늘에 올라가기-해와 달 조정 후 대결하기-이승과 저승 차지 대결하기-저승 혼돈 정리하기

〈천지왕본풀이〉는 〈초감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의미 맥락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내용에 의해서 일정하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편의 구성이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다. 천지개벽이 먼저 있고 위의 가)에서 다)까지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의해서 각편이 일정하게 구성되면서 본포도를 그리게 된다. 천지개벽을 강조하는 것과 수명장자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정 방식이 다르고 창세신화의 성격을 말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차별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본질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핵심적인 관건이고, 창세신화의 비밀이고, 아울러서 〈천지왕본풀이〉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천지개벽이 먼저 제시되는 것은 결국 제1의 창조를 말하는 창세신화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수명장자 또는 쉬맹이의 악행을 강조하는 것은 제2의 창조를 말하는 창세신화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창세신화의 성격이 우세하고, 뒤의 것은 홍수신화에 의한 인간사회의 파괴와 함께 인간사회를 재편하는 제2의 창세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신화적 성격을 〈천지왕본풀이〉에서 양립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에서 천지개벽과 수명장자의 악행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공통적인 자질은 천지왕이 하강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서순실의 〈천지왕본풀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선후 맥락이 선명하지 않은 채로 세 번째의 사연이 제시된다. 왜 이 천지왕이 내려오는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례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내력은 앞에서 가)3에 해당하는데 맥락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사연은 〈천지왕본풀이〉를 새롭게 보게 하는 하나의 요소를 더하게 된다. 맥락이 생략되고 이 때문에 터무니없는 하강이 이루어졌다. 그 점에서 준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소 맥락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천지왕의 혼인 사연 역시 각편마다 다른 점이 있어 주목된다. 일월의 혼돈이 생겨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며, 이와 달리 수명장자의 악행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하룻밤을 자게 되는 것이고, 서순실의 각편에서는 결국 하룻밤을 자게 되고 자식을 낳는 것만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이야기의 요소가 생략된 채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원래의 서사 유형이 훼손된 것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보인다. 예지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달리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있어서 등등의 것이지만 이에 대한 서순실 구연본은 다소 논리적인 인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이게 된다. 그 점에서 깊은 차별성이 생긴다.

천지왕의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은 문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주체의 대결에 의해서 창세를 하는 것, 곧 쌍분 창조는 세계 창세신화의 공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쌍분 창조의 전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신과 악신, 형제신과 자매신 등의 창조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으로 창조의 전형으로 쌍분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전형의 전승 요소는 〈천지왕본풀이〉만을 위해서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다른 창세신화의 이해에도 절대적인 구실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간주된다.

신화소의 배열과 이야기의 선후 관계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것과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은 쌍분 창조의 주체에 의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이 둘의 창조에 의해서 우주적 혼돈인 일월의 복잡한 문제, 이와 함께 이승과 저승의 분치 문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회적 혼돈이 선악의 문제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신화소의 배열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문제의 선후와 도착이 과연 어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서순실 구연의 〈천지왕본풀이〉는 이 가운데 다)1과 같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사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신의 잘못과 인간 사회의 무질서, 신의 후퇴와 우주의 혼돈 정리 문제 등에 대한 양상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천지왕본풀이〉는 입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하지 않음을 드러내게 된다. 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총괄적으로 논한다면, 서순실 구연의 〈천지왕본풀이〉는 이중춘 구연본과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좌읍 행원리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익힌 것이 확인된다. 결국 우리는 본풀이의 전승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선생이 누구이고, 어느 지역의 선생을 모셨는가에 의해서 이러한 본풀이적 성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서순실 구연의 〈천지왕본풀이〉는 이중춘의 구연본에 상당 부분 근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의 일치점과 이야기의 전개에서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역유형과 하위유형을 모두 동시에 성립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지역유형은 제주도의 구좌읍 일대 행원리와 김녕리에 전승되는 것을 말한다. 하위유형은 〈천지왕본풀이〉에서 내용상의 전개에 다른 점을 말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 정의해서 말하든지 이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령 수명장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쪽에서는 주인공의 명칭이 전혀 다르다. 가령 바구왕, 서수아미, 천지왕 등이 등장하는 것과 천지왕, 총명부인, 수명장자 또는 제인장자 등의 명칭이 있는 것 자체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면서 진행되는 사정을 보여주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천지왕본풀이〉의 비교신화학적 과제

구분		주체	대결의 방식	결과	결과의 해석
신화	명칭				
한국 구전신화	천지왕 본풀이	대별왕/ 소별왕	대결1: 수수께끼	문제와 해답 상이한 해석	해답에 이의제기
			대결2: 꽃 피우기	온잠과 찬잠의 꽃 흠치기	흠친 결과의 저주
	창세가	미륵/ 석가	대결1: 줄다리기	미륵 승리	미륵의 저주 인간 세상의 악
			대결2: 성천강 얼리기	미륵 승리	
대결3: 꽃 피우기			석가 승리		
일본 문헌신화	고사기 (일본서기)	아마테라스/ 스사노오	대결1: 우케히(宇氣比)	스사노오의 제안	스사노오의 주도권
			대결2: 자녀신 낳기	3위와 5위의 신 낳기(원인) 삼신은 스사노오, 오신은 아마테라스에 소속된다.	아마테라스의 해석 (각각 출자 곧 자녀임을 강 조한다.)
			대결3: 낳은 결과 해석	여신과 남신의 차별성 해 석(결과 해석)	스사노오의 해석
			대결4: 생산력 부정과 고갈시키기 ⁵⁾	아마테라스의 이의 제기	스사노오의 취함과 땅이 아까워 한 일
			대결5: 기적신 해치기	복직녀 또는 아마테라스 음부 찢려 사망 ⁶⁾	여러 가지 색깔의 말가죽 으로 처단
일본 구전신화	早池峯 神社	세 자매	대결1: 좋은 곳을 차지 하기 위한 꽃피우기 경 쟁	세 자매 가운데 막내 동생 이 자지 않고 훔쳐서 차지	막내가 결국 좋은 산을 차 지하게 됨
	刈田峯 神社	두 자매	대결1: 두 딸의 꽃 피 우기 경쟁	동생이 언니의 꽃이 핀 것 을 차지하게 되다	막내 차지와 신사에 도적 참배 불가

대결 방식에서 점사와 과정이 중요하다. 누가 누구에게 제안하고 어떻게 제안하고 풀어가는 것인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과정이 정리되면 우리는 이 내기의 방식과 대결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다. 신화소에서 중요한 것은 내기를 제안하고 답을 마련하고 나면 이에 대한 답안의 해석을 달리 하면서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이를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드러난다. <고사기>에서 벌어지는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내용은 명료하다.

가)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의 문답

스사노오의 순수한 의도와 우케히(宇氣比, 고대의 점복 방식), 그리고 아이 낳기

나) 아마테라스의 스사노오 물건 가지고 여성 자손 낳기

스사노오의 아마테라스 물건 가지고 남성 자손 낳기

다) 아마테라스의 자손 분별: 귀속과 아이 소속

출자와 자손 귀속 문제에 대한 심각한 분별과 정리

라) 스사노오의 자손 귀속에 의한 해석과 의도 입증

아마테라스가 스사노오에게 자신이 천상계에 오는 것이 청명한 뜻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고 묻자, 스사노오가 자신의 뜻이 결백하고 그 때문에 서약을 하면서 우케히를 하여

5) <<일본서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존재가 스사노오가 아니라 아마테라스라고 하고 있다.

“日神尊以天垣田爲御田。時素戔鳴尊。春則填渠毀畔。又秋穀已成。則昌以絡繩。且日神居織殿時。則生剝斑駒納其殿內。凡此諸事盡是無狀。雖然日神恩親之意。不愠不恨。皆以平心容焉。及至日神當新嘗之時。素戔鳴尊則於新宮御席之下。陰自送糞。日神不知徑坐席上。由是日神舉體不平。”

6) <<일본서기>>에서는 죽은 여성이 아마테라스이고, 이들의 죽음과 관련된 것임을 강조하는 조목이 존재한다. 『日本書紀』卷一第七段一書第一 一書曰。是後稚日女尊坐于齋服殿。而織神之御服也。素戔鳴尊見之。則逆剝斑駒投入之殿內。稚日女尊乃驚而墮機。以所持梭傷體而神退矣。

아이를 낳아 보면 알 수 있다고 답변한다. 문답법은 내기를 하는 전형적인 서두이다. 내기의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대적 점복의 방식을 전제하고, 아울러서 아이를 낳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문답과 점복, 아이 출산은 군사력의 의도와 생식력이 충돌하는 면모이다.

아마테라스가 먼저 점복의 방식으로 아이를 낳기를 하는데, 스사노오의 물건으로 여성 자손을 낳기를 하고, 이어서 스사노오가 점복의 방식으로 스사노오의 물건으로 남성 자손을 낳기를 시행한다. 점복과 자손 낳기는 긴밀한 의미가 있으며, 이는 내기의 방식이 상호의존적이고 둘이 대결하면서 조화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내기는 성적인 갈등과 조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물의 물로 정화하고 입에 넣고 안개처럼 뿜어내는 것은 상징적인 성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남성이 과연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 있으나, 우케히의 방식에 성적 은유가 개입되어 있음으로 등장한다.

아이 낳은 것에 대한 구분이 아마테라스에 의해서 감별된다. 자손의 귀속은 출자에 근거한다. 스사노오의 칼에서 비롯되었으나, 아마테라스가 입에 넣고 뿜어낸 여신 삼위는 스사노오의 자손이고, 아마테라스의 옥에서 비롯되었으나, 스사노오가 입에 넣고 뿜어낸 남신 오위는 아마테라스의 자손이라고 하는 판별은 아마테라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둘은 공유하고 구분하였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스사노오는 자신이 애초에 제기한 문제인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청명한 해석을 여신 삼위를 낳은 것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아마테라스의 감별을 받은 뒤에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문제의 해명이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그 결과 자신의 뜻이 청명하고, 그 때문에 둘의 내기에서 진정한 하늘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승리를 정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른 바 아마테라스의 눈에 분노를 뿌리고, 물구멍을 막아서 승리를 공고히 한다.

<천지왕본풀이>나 <창세가>에서도 내기의 제안자가 누구이고, 수수께끼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변이가 있다. 특히 <천지왕본풀이>에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을 구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자신의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소별왕의 의도가 돋보이고 결국 이 때문에 내기에서 승리하는 일이 발생하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한 의도를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확고한 결정을 이어나가는 각편이 있어서 <<고사기>>의 그것과 비교된다.

대별왕과 소별왕, 미륵과 석가의 꽃 피우기 경쟁은 재평가할 만한 상징적인 면모이다. 이것은 아메노야스가와 강의 사이를 두고 아이 낳기를 하는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의 아이 낳기와 비교된다. 힘겨루기, 주술적인 문제 풀기 등은 <고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생식력의 문제로 국토가 진동하고 황폐화되는 점은 같은 양상으로 보이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사실은 꽃 피우기를 통해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이고,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생식력의 주도권이지만 아이를 낳는 것과 비교된다. 단순히 꽃 피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변이된 것이고, 그 원인은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그렇지만 일본의 구전신화에서도 꽃 피우기의 화소적 변이는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이해된다. 가령 일본의 신사에 관련된 신화에서 이러한 구실을 하는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으며, 이 역시 출생력을 말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공통된 요소이고, 여러 가지 구전신화와 문헌신화에서 전승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고사기>>와 같은 자료집에서 보이는 문헌 자료와 현재까지 전승되었던 구전신화에서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신화소를 발견

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아는 한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른 바 특정한 주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서로 꽃피우기 경쟁을 하는 신화소가 있는데 이것의 현재적 변이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20세기 초엽까지 전승이 확실하였던 자료 가운데 신사에 관련된 구전신화가 꽃 피우기 경쟁을 하고 음심을 먹은 특정한 신이 꽃을 바꿔치기 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신이 산이나 산에 있는 신사의 주인으로 숭배되는 신화가 있음이 발견된다. 놀랍게도 이들의 다툼은 자매 사이의 다툼으로 되어 있으며, 특정한 산을 다스리는 주체로 설정되는 점에서 뚜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岩手縣 遠野市: 토오노(遠野郷)의 六角牛山 그리고 石神山과 早池峰山을 세 명의 자매가 나누려고 한다.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연꽃이 내려온 사람이 가장 수려한 早池峰山을 차지하기로 한다. 막내 여동생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큰 언니의 위에 내려온 꽃을 훔쳐서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아 내기에서 이긴다.⁷⁾

宮城縣刈田郡: 刈田峰 신사의 제신은 여신이다. 옛날 어떤 신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둘 다 月山の 신이 되고 싶어 한다. 아버지 신이 두 딸 신을 불러서 둘 중에서 더 아름다운 연꽃을 꺾어온 사람이 월산의 주인이 되라고 명한다. 자매가 연꽃을 꺾어서 돌아가는데 도중에서 동생이 언니의 꽃을 보니 자신의 꽃보다 더 예쁘므로 계락을 세워 언니의 꽃과 바꿔치기 한다. 아버지 신은 그런 줄을 모르고 약속대로 여동생을 월산으로 언니를 예전으로 보낸다. 그 때문에 월산에서는 도둑도 한 번의 참배를 용서하지만 刈田峰에서는 도둑은 절대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⁸⁾

7) 佐佐木喜善, 磐司磐三郎の話, <<東奥異聞>>, 坂本書店, 1926, 58-59면. 註記 3번의 자료이다.

早池峯山は姉妹三人の女性の神の一番末妹であるとて居る。美しいが仲々意地悪で、其の癖少々盜癖がある。此れは初め遠野郷三山即ち六角牛山、石神山と此山とを三人の姉妹に分つに、附馬牛村神遣と云ふ所に或夜寝、其の寝婆の上に天から蓮華が降つた者が一番秀麗な早池峯山を取らうと言ふのであつたところ、一番末妹が夜半まで眠らず假睡して居て長妹の上に降つた花を盗んで胸の上に置いたのだと謂ふ。故に此山の第一などには路傍等の家々では梨林檎其他娘嫁の類まで盜難に遭つてならなつた。東磐井郡膽澤郡地方にも其の信仰あり、盜棒の神と謂はれて其等の徒の窃かに信仰するものだと謂ふが、又私の<<江刺郡昔話>>のうちには同郡梁川村で得た資料で此れとは別種の口碑もある。併し一番末妹であり美しい若いさかね氣の女神であつたと謂ふことには變りない。

8) 谷川磐雄, 遠刈田の民俗, <<民俗叢話>>, 坂本書店, 1926, 81면.

藏王山頂を奥宮とし、こゝはこの里、延喜式内社で社格は郷社祭神は水分神、吉野からの御分靈で、役行者の開山だといふ。神主(金峯氏)さんの話によると、こゝの祭神は女神で、昔しある神の御子に姉妹の二神があつた共に月山の主とらうと望まれたが、或時父神は二神を呼ばれて、どちらが美しい蓮花を採つて來た者を、月山の主となすべしと命じた。姉妹は喜んで蓮花を探しにゆき、二人とも採集して歸る、途中姉妹の花を見ると、自分のよりも美しい、そこで女氣のむらむらと惡知恵を起し、計略を以て姉の花をとり換へる。父神はそらとは知らず約束通り妹神を月山に、姉神は刈田に祭られるこゝなつた。それ故月山では盜人も一度は參詣を許すが、刈田峯の方では盜人は決して入れないと。神でも姉はほんやりと見える。

[부록] 이중춘 심방 <천지왕본풀이> 각편 세 가지

서순실 심방의 <천지왕본풀이>는 스승인 이중춘 심방의 본풀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중춘 심방의 본풀이를 부록으로 함께 제시한다.

1. 제주도 이중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이 자료는 2000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웃당 큰당에서 있었던 것으로 예사로이 하는 당클맨굿에서의 큰굿을 가상하여 인공적인 조건 아래서 녹음한 자료이다. 녹음에 참여한 인물은 이중춘, 문순실, 오춘옥, 이름을 알리고자 하지 않는 아주망 등으로 모두 네 사람이었다. 초감제에서 행한 녹음을 사설을 정리하고, 일단의 주석을 붙여서 사용하기로 한다. 자세한 주석과 표준어 번역은 다음에 다시 제시하고 교정하기로 한다.

1) 삼석올림

삼석올림은 굿 시작을 1만8천신들에게 알리는 연물소리이다. 북, 징, 설쇠를 늦인석에서 중석 또는 중판, 자진석 등으로 느린 가락에서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두드려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은 약식으로 한 것이므로 삼석올림의 진행은 1분 35초간으로 간단하게 연주하였다.

2) 베포도업침

(큰심방인 이중춘이 앉아서 장구치며 연주하는데 이렇게 본풀이를 하는 것은 흔히 말미장기라고 한다. 본풀이의 가창방식은 이러한 형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른 형태가 더 있다. 그래서 모두 세 가지 연주 형태가 존재한다.)

초감제 연드리⁹⁾에 일만팔천(一萬八千) 심오옴전(神前) 성발리져 제청 신설현 해여십네다. 천지가 혼합(混合)이 되어옴네다. 천지 혼합시 도업이외다.

(소미들 징, 설쇠)

천지 혼합시 도업 제 이르난. 천지가 개벽(開闢)이 되어옴네다. 천지 개벽시 도업이외다.

(소미들 징, 설쇠)

(큰심방 앉아서 장구치며)

초감제 연드리로 천지혼합 제이르난 상 갑자년(甲子年) 갑자월(甲子月) 갑자일(甲子日) 갑자시(甲子時)에 밤도 왁왁¹⁰⁾ 일무공허고¹¹⁾ 낮도 왁왁 일무공 되옴네다. 을축년은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천가에는 즈허고 지가엔 축허고 인가에는 인허시난 하늘머린 지도트고¹²⁾ 땅의 머린 지나추난¹³⁾ 갑을 동방 니옴들고¹⁴⁾ 경신서방 출릴¹⁵⁾ 들고 백년 남방 놀개들고 해저북방 활꺽든다.

동성개문, 수성개문, 상경지개문 도업 제이르난 인헌 이도 삼하늘 디딘 이도 삼하늘 삼십삼천 서른시하늘 도업을 제이르난, 요 하늘은 요금세상 대명천지 붉은¹⁶⁾ 날 되어수다. 천구일

9) 차례, 순서

10) 캉캉

11) 한 묶음되고

12) 돌우고, 높이고

13) 낮추고

14) 잇몸들고, 머리를 들었다는 뜻이 됨

15) 쫓지

월 명하시고 지부총목 황해수 되옵디다.

검고 희고 높은 건 하늘이요. 무거웁고 산발허건 땅입네다. 짚으로 짚은 물 대천 바당¹⁷⁾ 되 어십네다.

갑을동방 천운성, 경신서방 직녀성, 경전남방 노인성, 인개북방 태극성, 삼태육성 선우성별 별자리 북구칠원 큰 대재 대성군, 으뜸원재 원성군, 춤진자는 진성군, 실마목재 목성군님, 대 개강재 강성군, 기록기재 기성군, 열릴개재 개성군님, 실은성군 도업을 제이르난

일강님도 도업있고 월강님도 도업있고 월일광 도업을 제이르난 산이 나난 물이 되고 물이되 난 산이나지

3) 천지왕본풀이

산 베포 물 베포 도업을 제이르난 천지왕은 지부왕 대별왕은 소별왕은-- 남정주-- 하적녀 도업을 제이르난

천지왕은 옥황이고 지부왕은 총명부인 법치법이나 마련허젠¹⁸⁾ 해연 천지왕이 지부왕에 누려산다.¹⁹⁾ 지부왕 총명부인 밥 한 상을²⁰⁾ 지어놀 곡명 어선²¹⁾ 수명장제 집에 쓸²²⁾ 한 되를 아사단²³⁾ 한 벌, 두 벌, 재삼 벌을 이뤄놓안 천지왕전 밥 한 상을 드렸더니 쳇 수구락에²⁴⁾ 머흘²⁵⁾ 맥힙디다.

“지부왕 총명부인님아 어떤 일로 쳇 손가락 머흘 맥힙네까”

“이 고을에 수명장제집이서 부재팔명 살아근 대미썰에 대몰래²⁶⁾를 흠어근²⁷⁾ 늠을²⁸⁾ 주고 소미썰엔 소몰래를 흠어근 늠을 주고 구진²⁹⁾ 곡석 주어근 좋은 곡석으로 받아먹고 죽은³⁰⁾ 말로 주영 큰 말로 받이고 쓸 한 되를 아사단 농의 왁을³¹⁾ 둘러받앙 한 벌, 두 벌, 재삼 벌을 이려내³²⁾ 밥 한상을 들여수다”

“나 뒤엔 칠천 명 저 군사 오천명 저 진중에 오랴구나”

결명시식(乞命) 잡식법 마련허고 천지왕은 지부왕은 초경, 이경, 소사삼경 짚은³³⁾ 밤을 거새와내 천지왕이 옥황으로 상천허젠 허난 지부왕 총명부인,

“천지왕님아 지나간 밤 배인 애기 이름 성명이나 지와도완 갑서”

“아들랑 낳건 몬저³⁴⁾ 난 건 대별왕, 말제³⁵⁾ 난 건 소별왕, 딸로 낳건 몬저 난건 대털왕 말

16) 밝은

17) 바다

18) 마련하려고

19) 내려간다

20) 한 상을

21) 곡식없이

22) 쌀

23) 가져다

24) 손가락에

25) 밥에 섞인 돌

26) 큰모래

27) 흠어서

28) 남을

29) 굶은

30) 적은

31) 박을

32) 일굴어, 찢어

33) 짚은

34) 먼저

제 난건 소털왕 이름 성명 지읍소서 아방 본메³⁶⁾ 두고 갑서”

옹에왓³⁷⁾ 콕시³⁸⁾ 세 방울 내여주며 하늘 말이,

“정월 첫들날에 이름 심영 양 콕줄낭 옥황덜에 버치고³⁹⁾ 혼 콕줄랑 지붕덜에 버쳐근 나를
쫓앙 보냅소서”

천지왕이 옥황덜에 상천허난 지부왕 총명부인 혼 텃줄에 아들 성제 솟아나난 몬저 난 건 대
별왕 말제 난 건 소별왕 이름 성명 지읍디다.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세 호만 준삭을 차가난
에 아방국도 드투고 어망국도 드툽디다.

“설운 성님아 우리가 드툽게 아니라 수치제껴근⁴⁰⁾ 이기건 저싱법이나 이싱법 마련헛서”

소별왕이 드여 수칠제깁디다.

“설운 성님아 어떤 일로 동지선돌⁴¹⁾ 서단풍 백논위에 어떤 낭은⁴²⁾ 잎이 떨어지고 어떤 낭
은 입이 아닌 떨어집니까?”

대별왕이 말을 허데,

“속이 여문 낭은 입이 아니 떨어지고 속구리낭은⁴³⁾ 입이 떨어진다.”

“설운성님 모른 소리 맙서. 왕대, 죽대, 조죽대 믋디⁴⁴⁾ 속구려도 입이 아니 떨어지고
머구낭은 속이 요마도⁴⁵⁾ 입이 떨어집니다.”

대별왕이 지어간다. 다시 수칠제끼대.

“어떤일로 동산의 풀은 쫄르고⁴⁶⁾ 굴렁에 풀은 매가⁴⁷⁾ 집네까”

“동산에 근물이⁴⁸⁾ 굴렁덜에⁴⁹⁾ 지기로 굴렁에 풀이 매가 진다”

“설운성님 그것도 몰람수다. 인간 사람은 머리가 우에라도 쉬인 대자 숲의 머리 이십내다”

대별왕이 수친제끼 지어가난 다시 수치,

“설운동생아 수친제껴내 지었저만은 서천꽃발 도올라 꽃실 타당 은소반에 꽃번성을 시겨 그
네 번성꽃 되는데로 저싱법, 이싱법을 마련허기 어찌허냐”

“걸랑 기영헛서”

대별왕과 소별왕 서천꽃발 도올라네 꽃실 타당 은수발에 꽃번성을 시겨뎡니 대별왕 앞의 꽃
은 궁에송에 가지가지 번성꽃, 소별왕 앞의 꽃은 검뉴울꽃 되옵데다.

“설운 성님아 읍서 좀이나 자게”

수면은 좀을 자당 성님앞의 꽃은 앞덜에 둔겨놓고⁵⁰⁾ 이녁 앞에 꽃은 성님 앞덜에 밀려내

“일어납서 꽃 상계(算計)나 하계⁵¹⁾”

35) 마지막에

36) 근거가 되는 매개체, 증거물

37) 박의 일종

38) 박씨

39) 뽕고

40) 수수께끼 하여서

41) 동지선달

42) 나무는

43) 속이 없는 나무는

44) 마디마디

45) 짝 차도

46) 짧고

47) 줄기가

48) 비옥한 흙물이

49) 굴렁에

50) 당겨놓고

51) 꽃가지 수나 헤아리자

대별왕이 일어난 보난 꽃은 선후 도착이 되었구나⁵²⁾. 글루부터 음용허기로 이싱법을 마련하긴 마련허라만은 강적수적(强賊水賊), 스해살인(詐害殺人) 이십니다.

저싱법은 이수능장법이로다⁵³⁾. 죽는날 춤실골은 법이로구나.

옥황덜에 상천허젠 해연 정월첻돌날 콕실 심영 용광줄은 지붕덜에 심어내 천하를 구버보난, 말모른 새가막새⁵⁴⁾ 길짐심⁵⁵⁾ 오조조조⁵⁶⁾ 일럼구나 송핏굴리⁵⁷⁾ 닷말닷대 칠새오릴 해여단 동서덜에 흠어떠니 구신갈뎡⁵⁸⁾ 구신가고 생인갈뎡 생인가고 남정주 화정녀 저싱, 이싱 곱을 갈라 사옵데다. 그 법으로 우리 제주에는 삼싱정월 되면 첻 정해일에 천지국재 지내는 법입니다.

대병왕이 옥황에 상천허난 용산국에 올르난 두르릉허게 올리난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아무도 타민 임재로구나. 원뿔 혼잔 매였더니 옥황천젠 연구름을 타고 백옥천젠 코끼리를 타고 우리 나라 옛날 임금 용상타기 마련헌 법치법이 되었수다.

천지왕도 도업있고 지부왕도 도업있고 대별왕은 저싱법, 소별왕은 이싱법, 염래왕은 저싱법 둘 마련한 생인님도 초감제 연드리로 도업을 드립니다.

대결안 천황씨(天皇氏)는 이에 목덕왕을 허난 성제 열둘이 무유유화 허난에 일만팔천세 도업허고,

지황씨(地皇氏)는 솟아나서 화덕으로 왕을 허난 성제 열하나 무유유화 허니 일만팔천세 도업허고,

인황씨(人皇氏)는 솟아나 분장구주허난 성제 구인 무유유화 허니 범백오십세에 스만오천 육배년 도업헌 생인님도 도업있고,

글지이후 후엔 유활유서썸(有巢氏) 솟아나난 밤을 새완 집을 짓언 사는 법을 마련허고,

수인씨(燧人氏)는 솟아나난 용잠대로 남을 깨언 시찬수에 불을 얻언 효인화식법 마련헌 생인님도 도업있고,

여화씨(女禍氏)는 솟아난 옷을 해연 입는 법 7르친 생인님도 도업을 제이려 드립니다.

글지후엔 태호복희썸(伏羲氏) 솟아나난 성은 풍성이라 사신인수 허니 머리는 사름머리요 몸뎡인 배므 몸이되난 팔괘 그런 글쓰는 법 고르치고 시집가고 장개들어 남녀구별법을 마련허고 그물을 치어내 사냥법을 마련헌 생인님도 도업있고,

글지후엔 염저신농씨(神農氏)가 솟아나난 인신우수(人身牛首)허난 성은 강성이라 머리는 소의 머리요 몸뎡인 사름몸이 되난 용장뎡 지어내 농스짓길 마련허고 백가질 풀을 맛을 보안 의약방물법 설련헌 생인님도 도업있고,

글지후엔 황제헌농씨는 솟아나난 성은 희성이라 방팍지언 군량막고 창을 지언 난릴막고 수레를 지언 먼길을 통행허고 배를 지언 저 바당을 넘어가고 넘어온 생인님도 도업있고,

글지후엔 전후고양썸(顓頊高陽氏) 솟아나난 청력을 내언 음과 양을 분간하고 굴매를 보안 시간법을 마련허고 일년 열두덜 스계절을 입춘 상덜 마련해연 삼백육십오일 팔천칠백예순시간 법치법 마련허던 생인님도 도업있고,

52) 바뀌었구나

53) 말고 청량한 법

54) 새, 까마귀

55) 길짐승

56) 말하는 모습

57) 송진가루

58) 귀신 갈 곳

주안씨는 열흔씨는 칼천씨 호양씨 혼돈씨 생인도업 제이르난 하우(夏禹), 상탕(商湯) 중우왕(主文王) 솟아나난 권력싸움 허난 공자왈 하늘에서 난 성인이라 서역주역을 내어내 악헌사름 선허게 허고 글을 배와 선배됨을 7르친 생인님도 도업허난 은하상탕 중우왕 추추전국허나내 풍성 강성 희성은 열다섯 십오생인님도 도업입네다.

천황베포도업

지황베포도업

인황베포도업 제청신도업이외다. 예---

4) 날과 국섬김

제청신도업 제이르난 이제청 설련하기는 어느 고을 어느 누계가 이 공서 하옵거든 아무 ㅁ을 아무 주당이 난 설서 아무가이가 받은 주당입니다. 어떤한 일로 나온 뱃설이 신병제살이 되어서나 조상무 적선허져 선대선저 부모조상 후망부보 저성사념해여근 이공서는 뱃꺽딜로 인도 하고 -이하 생략-

2. 이중춘구연, <천지왕본풀이>,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릿당굿보존회, 1998.

이 천지왕본이라 함은 하늘의 신허고 땅에 있는 신허고 부부가 뉘여서, 자식을 나가지고 큰 아덜은 저심 법도를 마련허고 또 작은아덜은 이심법도를 마련헌 그 생인(聖人)님이 한 일을 굿혈 때에는 초감제하고, 또 대신 맛을 때허고는 이 천지왕본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왕본을 풀겠습니다.

천지(天地)~ 혼합시(混合時) 도업(都業)을 제이리고(이르고) [장구, 이하 같음]

천지(天地)~ 개벽시(開闢時) 도업(都業)을 제이리난.

상~갑자년(上甲子年) 갑자월(甲子月) 갑저일(甲子日) 갑저시(甲子時)엔~

밤도 왁왁(깜깜) 일무공(한 묶음) 낮도 왁왁 일무공 허옵데다.

을축년(乙丑年) 을축월(乙丑月) 을축일(乙丑日) 을축시(乙丑時)엔~

천가(天開)엔 조하(子會)시고

지가(地開)엔 축허(丑會)시고

인가(人開)엔 인허(寅會)시난~,

하늘 머리 지돏고(들고) 땅의 머리 지돏추니(낮추니)

요 하널(하늘)은 요 금상(今世上) 떡징 7치⁵⁹⁾ 굽이⁶⁰⁾ 나가난,

하늘로는 청이실(淸이슬) 땅으론 물이실(물이슬)이 솟읍데다(솟읍디다).

갑을동방(甲乙東方) 니엄(잇몸) 들곡(들고)~,

경신서방(庚申西方) 출릴(꼬리틀) 들곡,

경오남방(庚午南方) 놀꺽(날개틀) 들곡~

해저북방(亥子北方) 활길(활개틀) 드난(드니),

동성게문(東星開門) 험데다.

수성게문(水星開門) 험데다. 상경지 게문(開門) 도~업 디리니(드리니)

잉언(이은) 이 삼(三) 하늘, 디딘 이도 삼 하늘, 삼십삼천(三十三天)~

59) 떡징 : 시루떡을 찔 때 소를 넣어 뿔 수 있게 한 층계.

60) 굽 : 금. 경계.

서른 식 하늘
 도업허난~,
 대명천지(大明天地) 붉은(밝은) 날이 뒹엇고나.
 갑을동방(甲乙東方)으론
 천운생(天運星)이 뜨고,
 경신서방(庚申西方)으론
 직녀생(織女星)이 뜨고,
 병정남방(丙丁南方)으론
 노인생(老人星)이 뜨고,
 임계북방(壬子北方)으론
 태금생(太金星)이 뜨난,
 삼태육성(三太六星)
 선오성별⁶¹⁾ 별자리는
 짓 알레(아래) 별, 짓 우(위) 새별
 북두칠원(北斗七元) 태성군(太星君),⁶²⁾ 원성군(元星君)은⁶³⁾ 진성군,⁶⁴⁾ 목성군,⁶⁵⁾ 강성군(綱星君),⁶⁶⁾ 기성군(紀星君),⁶⁷⁾ 계성군(開星君),⁶⁸⁾ 칠원성군(七元星君) 도업을 제이리난,
 월광(月光)님도 도업,
 일광(日光)님도 도업
 제이리니~,
 산과 물에 굽 갈르저.
 동학산은 서악산, 남악산은 북학산은~
 팔도명산(八道名山) 도업을 제이리난,
 동이(東에) 요왕(龍王) 청요왕(靑龍王), 서이(西에) 요왕(龍王) 백요왕(白龍王), 남이(南에) 요왕(龍王) 적요왕(赤龍王), 북이(北에) 요왕(龍王) 흑요왕(黑龍王)은
 청금산(靑金山)의 요왕
 적금산(赤金山)의 요왕,
 수금산(水金山)의 요왕,
 수미산(須彌山)의 요왕.
 스만(四萬) 스천(四千) 스웨용신(四海龍神) 도업을 제이리난,
 천지왕(天地王)은 옥황(玉皇)이곡,
 지부왕(地府王)은 총명부인.
 천지왕이 지부왕 내려사난.⁶⁹⁾
 지부왕이 총명부인~
 밥 혼 상을 지여 놓~저.

61) 선오성별 : ‘성오성별’, ‘성별’ 등으로 달리 쓰이나, 뜻 미상(未詳).

62) 태성군(太星君) : 북두대성탐랑성군(北斗大聖貪狼星君).

63) 원성군(元星君) : 북두원성거문성군(北斗元聖巨門星君).

64) 진성군 : 북두직성녹존성군(北斗直聖祿存星君)의 ‘직성군(直星君)’이 와전된 것.

65) 목성군 : 북두무성문곡성군(北斗繆聖文曲星君)의 ‘무성군(繆星君)’이 와전된 것.

66) 강성군(綱星君) : 북두망성염정성군(北斗網聖廉貞星君).

67) 기성군(紀星君) : 북두기성무곡성군(北斗紀聖武曲星君).

68) 계성군(開星君) : 북두개성파군성군(北斗開聖破軍星君).

69) 천지왕이 지부왕 내려사난 : 천지왕이 지부왕(地上)에 내려서니.

그 7월에 수면 장제(長者) 집이는
 대미쌀(大米-)엔 대몰래(大모래)를 허터근(섞어서) 놔(남)을 주곡(주고),
 소미쌀(小米-)엔 소몰래(小모래)를 허터근 놔(남)을 주곡,
 작은 말[斗]로 주어근 큰 말로 받곡,
 굿인(굿은) 곡식(穀食) 주어근 좋은 곡식으로
 받읍데다. 으어~.
 쌀 흰 뉘(升)를 앓아단(가져다가)
 농에악을⁷⁰⁾ 둘러받아근(받아 앉아서)
 혼불(초벌) 두불(두벌) 재삼불을⁷¹⁾ 일언에(씻어서), 천지왕님 전 밥 혼상을 들러노난.
 천지왕이 쳇(첫) 숯구락(숯가락)을 들르난(드니), 머물(돌)이 맥힙데다. 으어~.
 “지부왕 총명부인님아,
 어떻허난(어떻게 하니) 쳇 숯구락에 머물(돌)이 맥힙네까?”
 “이 고을에 수면 장제 집의는(집에는) 굿인 곡식은 주어근 좋은 곡식 받곡,
 작은 말로 주어근 큰 말로 받곡,
 대미쌀엔 대몰래를 허트곡, 소미쌀엔 소몰래를 허터근 놔(남)을 주엄수다만은,
 쌀 흰 뉘를 앓아단 혼불 두불 재삼불을 일언에 밥 혼상을 지어놓앗수다.”
 “기영 허거들랑(그렇다면)
 이 밥상을 밀려근(밀어서)
 나 도엔(뒤에는) 칠천(七千) 명의 저 군사(軍士), 오천(五千) 명의 저 진종(陣宗) 오라시매(왔으
 니), 걸명신세⁷²⁾ 잡식법(雜食法)을 마련허곡~,
 수면 장제 집이라근
 사름(사람) 죽어나거든(죽으면) 오곡밥을 해여근(해서) 걸명신세 잡식(雜食)으로 얻어먹기 설연
 허라.”
 법지법(法之法) 마련해여된(마련하여 두고),
 초경(初更) 때도 넘읍데다.
 이경(二更) 때도 넘읍데다. 으어~.
 스서삼경⁷³⁾ 지폰 밤 거(거의) 세오난(새우니),
 천지황이~ 옥황(玉皇)드레 도올르젠(오르려고) 헤여가니~,
 지부왕 총명부인
 굳는 말이~,
 “천지왕님하,
 지나간 밤 뵈 얘기 이름이나 지읍곡(짓고) 성명(姓名)이나 지와두영(지어두고) 갑셴(가시라고).”
 허난.
 “기영 허거들라근,
 아덜랑 낱거들랑,
 몬저(먼저) 난 건 대별왕, 말제(나중에) 난 걸랑 소별왕, 이름 성명(姓名) 지읍곡(짓고), 똥랑(똥

70) 농에악 : 미상(未詳). ‘-악’은 박(瓢)이니 박으로 만든 그릇의 일종.

71) 혼불 두불 재삼불 : ‘불’은 ‘벌’, ‘번’의 뜻.

72) 걸명 : 잡귀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제(祭)를 지낸 뒤 음식을 걸어 던지는 일.

73) 스서삼경 : 삼경(三更)이라고 할 것을 ‘스서-’를 덧붙였다. ‘스서-’는 조운(調韻)을 위한 것으로, 사서삼경(四書三經)에서 빌어 온 것.

은) 날거들랑 몬저 난 건 대별왕, 말제 난 걸랑 소별왕 이름 성명(姓名) 지으시라.”
 “아방 본메나⁷⁴⁾ 농와두영(농아두고) 갑서.”
 농에와 쿡씨(박씨) 세 방울 내여주명(내주면서) 곤는(하는) 말이,
 “정월(正月)이라~
 쳇 돛날(돼지날, 亥日)에 으에~
 메(苗)를 심영 양 쿡 줄랑은 옥황(玉皇)더레 번지곡(번게 하고), 훈 쿡 줄랑 지봉드레 번집소서.”
 영 골아두언 천지왕은 옥황(玉皇)이 도올른다.
 그 법(法)으로
 우리 국이~선
 정월(正月) 정해일(丁亥日)에
 천제(天祭), 국제(國祭), 맛을 포제(醕祭)를 까는 법이 올십네다.⁷⁵⁾
 천지왕이~
 옥황(玉皇)이 상천(昇天)허난,
 지부왕 총명부인~
 훈 텃줄에
 아덜 성제(兄弟) 솟아난다. 으어~.
 몬저 난 건 대별왕, 말제 난 건 소별왕, 이름 성명(姓名) 지읍디다.
 이 애기덜이
 훈설 두설 열다섯 십 오세가 근당(近當)헤여가난,
 아방국도 ㄷ투고, 어멍국도 ㄷ툼데다, 으어~.
 “서룬 성님아, 성님이랑 아방국 저성법을 마련험서~.
 날라근(나는) 어멍국 이성법을 마련허쿠다.”
 서로 ㄷ뵤가난(다투어가니)
 소별왕이 말을 허뵤~,
 “서룬 성님아, 우리가 ㄷ툼 것이 아니라 수치 젓겨근(수수께끼 해서) 이기건(이기면) 저성법이
 나 이성법이나 맛음대로(마음대로) 마련험서.”
 대별왕이 곤는 말, “걸라근 기영 허렌.” 허난.
 소별왕이~
 수칠 젓겨간다.
 “어떤 일로 동지(冬至) 섯덜 설한풍(雪寒風)에~
 어떤 나뭇잎이 떨어지고,
 어떤 나뭇잎이 아니 떨어집네까?”
 “서룬 동생아,
 속이 ㄹ문(여문) 낭(나무)은 입이 아니 떨어지고, 속 구린(빈) 낭은 입이 떨어진다.”
 “서룬 성님, 모른 소리 맙서. 왕대, 죽대(이대) ㄸ죽댄(鳥竹대는) ㄹ디ㄹ디 속 구려도 동지섯덜
 설한풍 제 몸 자랑 허십네다.
 머구낭(머귀나무)은~

74) 본메 : 증거가 될 물건. ‘본메본짱’이라고도 한다.

75) 맛을 포제 : 마을 포제(醕祭). 제주도에서는 음력 정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유교식 마을 제인 포제(醕祭)를 지낸다.

속이 으마도(여물어도) 입(앞)이 떨어집네다.”

대별왕이 수치 짓겨 지어간다.

다시 수칠 짓기되, “서룬 성님아. 어떤 일로 동산에 풀은 메가 질고(길고)⁷⁶⁾

굴렁(구렁)에 풀은 메가 쥘릅네까(쥘습니까)?”

“헌 일 알고 두 일 모른 동생아. 동산에 건(기름진) 물이 굴렁더레(구렁으로) 지기로 굴렁에 풀 메가 진다.”

“설룬 성님 모른 소리 맙서.

인간 사름은 머리가 지중 우이라도(위에라도) 쉰 대자 수페머리 나는 법입네다.”

수치 짓겨 대별왕이 지어간다.

대별왕은 수치에 지난,

“기영 허거들랑 우리가 꽃(꽃) 번성(繁盛)을 시겨근(시켜서) 저싱법, 이싱법을 마련허겐(마련하자고).”

대소별왕이

서천꽃밭 도올라(올라가)

꽃썰(꽃씨를) 타단(따다가)

은수반(銀水盤)에 꽃 번성을 시겻더니(시켰더니)~,

대별왕 앞에 꽃은

시앙석석 번성꽃,

소별왕 앞에 꽃은

시앙석석 검뉴을꽃⁷⁷⁾ 뒤편간다.

“설룬 성님~아,

옵서,⁷⁸⁾ 우리 줌(잠)이나 자게.”

대별왕은 무정(無情) 눈에 줌은 자난~,

소별왕은 소면(少眠?)헌 줌을 자~단

성님 앞에 꽃은 이녁(자기) 앞더레(앞으로) 등기고(당기고), 이녁 앞에 꽃은 성님 앞더레 밀려 두언,

“성님 혼저(어서) 일어납서. 꽃상기나⁷⁹⁾ 헤여보게~.”

대별왕이 일어난 보난,

꽃은 선후도착(先後倒錯) 뒤편구나.

설룬 동생아,

넬로부떠(너로부터) 의몽허기로⁸⁰⁾

이싱법 마련허긴 마련허라만은,

이싱법은~

강적수적(强賊水賊)이여,

스회살인(詐欺殺人)이여,

살인방화(殺人放火)여,

76) 메가 질고 : 흙의 비옥도 또는 그에 따른 초목의 성장도를 말함인데, ‘메가 질다’고 함은 비옥도 혹은 성장도가 좋다는 말이다. ‘메가 쥘르다’는 그 반대이다.

77) 검뉴을꽃 : 시드는 꽃.

78) 옵서 : ‘오십시오’라는 뜻이나, 무슨 일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흔히 쓰는 표현.

79) 꽃상기 : 꽃 가꾸기 내기. ‘상기’는 ‘내기’의 뜻.

80) 의몽허기로 : 마음이 곱지 않기로.

있이리라(있으리라).
저싱법은~
이수농장 법이여.⁸¹⁾ 주년날⁸²⁾ 춤쉴 7튼(참실같은) 법이로다.
대별왕이~
옥황(玉皇)드레 도올르저(오르려고)~
정월(正月)이라 쳇dot날 메(苗)를 심언(심어서)~
양 곡줄은 옥황(玉皇)드레 번지곡,⁸³⁾ 훈 곡줄은 지붕드레 번집데다.
첫날은~
굽언보난(굽어보니)~,
말 모른 새가막새⁸⁴⁾ 길중신(길짐승) 오조조조 일럼구나(짓는구나)~.
구신(鬼神) 불르민(부르면) 생인(生人) 대답허고,
생인(生人) 불르민 구신(鬼神) 대답허난,
스서 분간 엇이난, 생피(松皮) 끌리(가루) 닛말 닛똥, 칠세 오릴 헤여다가~
동서(東西)르레 허트난(홀으니),
남정중화정려(南正重火正黎) 스서 분간 헤여간다. 으~.
다시 천할(天下를) 굽어보난~,
밤원(밤에는) 천명(千名) 곱아(얼어) 죽곡,
낮원(낮에는) 천명 좇아(말라) 죽나, 으어~.
천근(千斤) 들어 활이여
백근(百斤) 들어 쌀(살)이여.
오리 동동 조금 물립데다.⁸⁵⁾
초 어시름(어스름) 낮의나
월광(月光)이 뜨고 온다.
앞에 월광 쟁겨두곡(놓아두고)~
뒤에 월광 쏘아당 어멍국이 진도밧제 허곡,⁸⁶⁾
초~ 으 아적(아침) 일출(日出)이 나잔
일광(日光)이 뜨고 온다. 으어~.
앞에 일광 쟁겨두곡~,
뒤에 일광 쏘아단 아방국에 진도밧제 허니,
하늘은 아방잇법,
땅은 어멍법이여.
남정중(南正重)은 저싱법을 마련허곡~,
화정녀(火正黎)는 이싱법을 마련허니.
염래왕(閻羅王)은 저싱법도법을 마련헤는 법입네다~.
천지황도 도업,
지부왕도 도업,

81) 이수농장 법 : 미상(未詳)이나 맑디맑은 법, 깨끗한 법, 공명정대한 법 정도의 뜻을 지닌다.

82) 주년날 : 미상(未詳).

83) 번지곡 : 뻥게 하고.

84) 새가막새 : 까마귀. ‘새-’는 조운(調韻)을 위해 덧붙인 것.

85) 오리 동동 조금 물립데다 : 미상(未詳). “시위를 잔뜩 당기더라” 정도의 뜻인 듯 하다.

86) 진도밧제 허곡 : ‘진도밧제’는 미상(未詳). 바치고(?).

대별왕도 도업~,

소별왕도 도업,

남정중화정녀(南正重火正黎) 저싱 이싱 도업을 제이려 디립네다.

3. 제주도 천지창조신화 <천지왕본풀이>

- ‘서순실 대역례’ 국 중 이중춘 구연본 (2006.12.29.)-

이중춘 구연

김현선 채록

김현선 번역

1. 본풀이 원문

천지왕은 지부왕 도업허난, (장구)

천지왕이 지부왕 ㄴ려산 밥 ㅎ 상을 지어늘 곡명(곡식) 엇어(없어)지난 그거 우리 수면장재⁸⁷⁾집이 간 쫄
ㅎ 될 앓아단(가져다) 초불(초벌) 이불 재삼불을 일언 천지왕님전 밥 ㅎ 상을 디림수다 예~ (장구)

천지왕 쳇숙구락(첫 번 순가락에) 머흘⁸⁸⁾(모래)이 벅헛데다 (장구)

“지부왕의 총명부인님아 어떠한 일로 쳇숙구락 머흘이 벅헛수파?” (장구)

“그렇게 게 아니라 우리 ㅁ을 수면장재집이 천하부재 살아근 대미썰엔 대몰래를 헐엿 ㄴ을 주궁, 소미
썰엔 소몰래를 헐어근 ㄴ을 주고, 궂인 곡석은 주어근 좋은 곡석으로 바꾸고, 좋은 말(斗)로 주어근 큰
말로 받음데다.” (장구) 쫄 한 되를 앓아다(뺏어다가) 한불 두불 재삼불 일엿수다.” (장구)

“나 두엔(뒤엔) 칠천 명이 저 군사 오천 명이 저 진중이 ㅍ란오랏구나(따라왔다).” 시결명 잡식을⁸⁹⁾ 마
련헛데다. 예 (장구)

(<<2'01">>) 초경 때도 넘으곡 이경 때도 넘으곡 사스삼경 짚은 밤을 거세와네, (장구)

천지왕이 (장구) 옥황에 상천(上天)허젠 허난 (장구) 지부왕이 총명부인 곤는(말 하는) 말이, (장구)

“천지왕님아 (장구) 지나간 밤 배인 애기 이름 성명 지와곡 아방(아버지) 본메(증거품) 주고 갑서.” (장
구)

천지왕은 “몬저 난 걸랑 대별왕 말썸(나중예) 난 걸랑 소별왕, 몬저 난 건 대털왕 말썸 난 건 소털왕 이
름 성명 지웁소서.” (장구)

“아방 본메 두고 갑서.” (장구)

용에알 ㄱ씨⁹⁰⁾(박씨) 세 방울 전하여준다. (장구)

“정월이라 쳇 돛날(亥日) 메를 심어근 양통줄랑 옥황도레 번치고 ㅎ ㄱ 줄랑 지붕드레 번쳐근 나를 좇아
보냅소서.” (장구)

천지왕이 옥황에 상천하옵데다. 지부왕 총명부인 ㅎ 탕줄 아들 성제가 솟아나난, (장구)

야 그 법으로 삼싱 정월 정해일이 당하민 제주는 ㅁ을 포제(醺祭)⁹¹⁾를 지내는 법이우다, 예~ (장구)

87) 수면장재: 수명장자라는 인물로 사회악으로 일종의 홍수신화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악인형인물이다. 유사한 사례로 우리는 <장자못전설>과 같은 사례에서 이 악인형 인물의 전형을 만날 수 있다. 창세신화와 홍수신화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예증이 된다.

88) 머흘: 발을 가는데 장애가 되는 지면에 박힌 돌을 의미하거나 바다 밑에 깔린 돌맹이이다. 이것은 모슬이나 물래와 준별되는 것인데 돌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89) 시결명 잡식: 결명시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록재나 권공재를 들인 뒤에 잡귀잡신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절차에서 유래된 용어. 상위의 신격인 천지왕과 그 뒤를 따라온 군사나 진중에게 음식을 내려먹는 것을 뜻한다.

90) 용에알 ㄱ씨: 용열레기와 ㄱ씨를 합친 말로 열레빋과 박씨를 말한다. 용열레기빋은 흔히 증거물이고, 박씨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고대 고구려신화에서 보이는 부러진 검과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상술과 상통하는 것이다.

(<<4'04">>) 이 애기들이 혼 살 두 살 열다섯 십오세가 근당해여 가난, (장구)
 아방국도 ㄷ투고 어멍국도 ㄷ툼데다. (장구)
 양 흐룰날은 소별왕이 곤는 말이,
 “서룬 성님아 우리 ㄷ툼게 아니라 수치젓기(수수깨끼) 허근 이기는대로 저싱법 이싱법을 마련 허옵소서.” 에~ (장구)
 “결라근 기영허저.(그건 그렇게 하자.)” (장구)
 소별왕이 말을 허젠, (장구)
 “서룬 성님아 (장구) 어떤 일로 동지선들 설한풍 어떤 나문 잎이 떨어지고, (장구) 어떤 낭(나무)은 잎이 아니 떨어집네까.” (장구)
 “속이 여문 낭은 잎이 아니 떨어지고 (장구) 속 구린(비어있는)낭 잎이 떨어진다. (장구)”
 “서룬 성님 모른 소리 맙서. (장구) 왕대 죽대 (장구) 즈죽댄 ㄹ디 ㄹ디 속구려도 잎이 아니 떨어집네다. (장구)”
 대별왕이 지어간다. (장구)
 다시 수칠적으저, (장구)
 “어떤 일로 동산의 풀은 매⁹²⁾(苗)가 졸롭고(짧고), (장구) 울령의 풀은 매가 집네까?” (장구)
 “동산의 덤불인 울령드레 지난이 울령의 풀이 매가 진다.” (장구)
 “서룬 성님 모른 소리 맙서. (장구) 우리 인간 백성 (장구) 머리가 질 우이라도 (장구) 쉰대자 수페머리 잇십네다.” (장구)
 대별왕이 지어간다. (장구)
 “기영허거들라근 (장구) 우리 서천꽃밭이 들어강 (장구) 꽃썰 타다근 (장구) 은소반에 꽃번성을 시겨근 (장구) 저싱 이싱 굽갈르게.” (장구)
 “결라근 기영헉서.”
 (<<6'44">>) 대별왕과 소별왕 서천꽃밭 도올라 꽃썰 타단 (장구) 은소반에 꽃번성을 시겼더니 (장구) 대별왕이 앞에 꽃은 시앙썩썩 번성꽃, 소별왕이 앞에 꽃 시앙썩썩 검뉴울꽃 되옵데다. (장구)
 “서룬 성님 읊서 우리 줌(잡)이나 자게.” (장구)
 대별왕은 무정눈에 줌을 자는구나. (장구) 소별왕은 초면으 줌을 자다근 (장구) 성님 앞의 꽃을 (장구) 이녁 앞드레 등겨놓고, (장구) 이녁 앞의 꽃은 성님 앞드레 밀려된,
 “서룬 성님 무신 줌을 기영 잡니파? (장구) 일어납서 꽃 상계(계산)나 헤여보게.” (장구)
 대별왕이 일어난보난 꽃은 선후도착이 되였구나,
 “서룬 동생아 널로부터 음흥허기로 저싱 이싱법 마련허기 마련허나만은, 강적수적 (장구) 소외 사리 (장구) 방화 역적 (장구) 있이리라. (장구) 저싱법은 이수농장법이며 주년날 촛썰같은 법이로구나.⁹³⁾” (장구)
 대별왕이 옥왕드레 상천허젠 헤여, (장구) 용애와 꾀씨 세 방울 (장구) 정월이나 췌 돛날 매를 심고 (장구) 양 꾀 줄을 옥왕드레 번치고, 혼 꾀 줄은 지붕드레 번칩데다. (장구) 천하를 굽어보난 말 모른 새 가막새 오주주주 일럼구나.⁹⁴⁾ 구신 불르민 생인 대답허곡, 생인 불르민 구신 대답허난, 생피 끌린⁹⁵⁾ 닷말 닷되 칠새 오릴 내어단 동서드레 혈으난 남정중 화정역⁹⁶⁾ 굽을 갈라 가옵데다. (장구)
 대별왕이 옥황이 도올르난, (장구) 용상이 비였구나. (장구)
 용상 우트레 올라 타난, (장구) 드르렁 허게 우난,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아무도 타민 임제여 (장구) 기건 혼쪽 무옵데다.” (장구)
 그 법으로 (장구) 옥황 천주는 용구름을 타고, 대국 천주는 코끼리 타고, 우리나라 임금은 용상 타기 마

91) ㄹ을 포제: 제주도에서 지내는 남성 위주의 유교식 제사이다.

92) 매: 싹이나 이삭을 말하는 것으로 한자로 苗에서 나온 말이다.

93) 저싱법은 이수농장법이며 주년날 촛썰같은 법이로구나: 저싱법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뜻의 속담이다.

94) 새 가막새 오주주주 일럼구나: 새ㄷ림에 등장하는 많은 새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95) 생피 끌린: 송진 가루.

96) 남정중 화정역: 무슨 말인지 미상.

런헤였수다. (장구)

천지왕도 도업, (장구) 지부왕도 도업, (장구) 대별왕은 저싱법 이상법은 소별왕 도업허는, (장구)

2. 본풀이 표준어 번역본

천지왕은 지부왕과 함께 세상을 만드는 도업을 하게 되니 천지왕이 지부왕에 내려와서 밥 한 상을 지어먹을 곡식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 수명장자집에 가서 쌀 한 되를 가져다가 초벌이벌 재삼벌을 일어서 천지왕에게 밥 한 상을 드렸습니다. 천지왕 첫 손가락에 모래가 씹히게 되었습니다.

“지부왕이 총명부인님아 어떠한 일로 첫 손가락에 모래가 박혀 있어서 씹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수명장자집이 천하의 부자로 살아가는데 대미쌀에 대모래를 흠어서 남을 주고, 소미쌀에는 소모래를 흠어서 남을 주고, 나쁜 곡식을 주고는 좋은 곡식으로 바꾸고, 좋은 것은 말로 주고서는 큰 말로 받습니다. 쌀 한 되를 가져다가 한 번 두 번 두 세 번을 거둬서 일었습니다.”

“나 뒤에는 칠천 명의 저 군사 오천 명의 저 진중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시식건명 잡식을 마련합니다.”

초경 때도 넘고 이경 때도 넘고 사사삼경 깊은 밤을 지나서는 천지왕이 옥황에 상천하고자 하니까, 지부왕 총명부인이 하는 말이,

“천지왕님아 지나간 밤에 배인 아기 이름 성명을 지어두고 아버지의 본메본장인 증거를 주시고 가십시오.”

천지왕이,

“먼저 낳은 것일랑은 대별왕이라고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낳은 것일랑은 소별왕이라고 하고, 만약에 딸을 낳거든 먼저 낳은 것은 대털왕이라고 하고 나중에 낳은 것은 소털왕이라고 이름을 지으십시오.”

“아버지의 본메를 주고 가십시오.”

용에발(이는 전승 과정에서 일탈되고 변개된 것으로 추정되며, 본래는 용얼레기빛) 박씨 세 방울을 전해준다.

“정월달 첫 번째 돼지날(亥日)에 메를 지어바치고 가져다가 양줄로 한쪽에다는 옥황에게 바치고 한쪽 줄일랑은 지붕에다 바치거든 나를 찾아서 보내십시오.”

천지왕이 옥황으로 상천하여 올라갑니다. 지부왕 총명부인이 한 텃줄에 아들 형제를 태어나게 되어서 야 그 법으로 상성 정월 정해일이 되면 제주도에서는 마을 포제를 지내게 되는 법이 마련되었다. 이 아기들이 한 살 두 살 열다섯 십오세가 근당하여 가니까 아방국도 다투고 어멍국도 다투입니다. 양 하룻날은 소별왕이 하는 말이

“서륜성님아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를 하여서 이기는대로 저승법과 이승법을 마련합시다.”

“그것일랑 그렇게 하자꾸나.”

소별왕이 말을 하니까는,

“서륜성님아 어떠한 일로 동지 설달 설한풍에 어떤 나무의 잎은 떨어지고 어떠한 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속이 찬 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속이 빈 나무는 잎이 떨어진다.”

“서륜성님아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왕대 죽대 자죽대는 마디 마디 속이 비어 있어

도 잎이 아니 떨어집니다.”

대별왕이 수수께끼 내기에 지게 된다. 다시 수수께끼를 할 적에,

“어떠한 일로 동산의 풀은 줄기가 짧고 구령의 풀은 풀이 줄기가 길니까?”

“동산의 덩불은 구령으로 지나까 구령의 풀이 줄기가 길다.”

“설론 형님아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 백성 머리가 질 위에 있어도 쉬뎃자로 숲의 머리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에 대별왕이 지게 된다.

“그렇게 하거들랑 우리 서천꽃밭에 들어가서 꽃씨를 타다가 은소반에 꽃번성을 시켜서는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가르자.”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대별왕과 소별왕 서천꽃밭에 올라가서 꽃씨를 타다가 은소반에 꽃번성을 시켰더니 대별왕의 앞에 꽃은 ‘시앙씩씩’ 피어나는꽃(번성꽃), 소별왕의 앞에 꽃은 ‘시앙씩씩’ 시드는꽃(검뉴을꽃) 되었습니다.

소별왕이,

“설론 형님아 오십시오 우리 잠이나 자게”

대별왕은 무정한 눈에 잠을 자는구나, 소별왕은 초면에 잠을 자다가 형님 앞의 꽃을 자기 앞으로 당겨두고, 자기 앞의 꽃은 형님 앞으로 밀어두고서는,

“설론 형님아 무슨 잠을 그렇게 잡니까? 일어나십시오, 꽃 상계(算計)나 하십시오.”

대별왕이 일어나서보니까 꽃은 선후가 바뀌고 도착이 되었구나,

“설론 동생아, 너로부터 음흉하기로 저승 이승법 마련하기 마련하지만 강적 수적 사외사리 방화역적 있으리라, 저승법은 이수농장법이며 주년날 참쌀같은 법이로구나.”

대별왕이 옥황으로 상천하자고 하니까, 용에용 박씨 세 방울을 정월이라 첫 번째 돌날 메를 심고 양 박의 줄을 옥황으로 번치고, 한 박의 줄은 지붕으로 뻗치는구나. 천하를 굽어보니까 말 모르는 새 가막새 오주주주 생겼구나. 귀신을 부르면 생인이 대답하고, 생인을 부르면 귀신이 대답하니까, 송진 가루 닳 말 닳 되 칠새 오리를 내다가 동서방향으로 흩어버리니 남정중 화정역의 경계를 갈라 갑니다.

대별왕이 옥황으로 도오르게 되니까 용상이 비었구나, 용상 위로 올라타니까 용상이 드르렁 하게 우니까는,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아무나 타면 임자이니 그렇게 해서 한쪽을 묶습니다.”

그법으로 옥황천자는 용구름 타고 대국 천자는 코끼리 타고, 우리나라 임금은 용상타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지왕 도업 지부왕 도업 대별왕은 저승법, 이승법은 소별왕 도업하난에